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박 순 미
(진주보건대학교)

손 지 아*
(가야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소득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학력은 초등 졸업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변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 하 집단인 경우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노인복지기관 이용여부 등이, 소득수준 중 집단은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은 건강상태,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 하, 중 집단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영향력이 크며, 소득수준 상 집단은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주요 용어: 노인가구, 생활만족도, 소득수준, 노인실태조사

본 연구는 2016년도 가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손지아, 가야대학교(rosa@kaya.ac.kr)

■ 투고일: 2016.6.30 ■ 수정일: 2016.10.5 ■ 게재확정일: 2016.11.3

I. 문제제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 이 시기에 노인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또는 경험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김정옥, 박자영, 2007, p.99) 특히,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환경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개인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여부와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복지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p.2). 한편으로 개인이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요건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김수봉, 2010, p.96)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험과 수준은 각각의 특징과 욕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의 다른 연구 대상과 비교해서는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성별, 배우자관계, 가족형태,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 활동정도, 역할수행과 같은 역할 활동 관련변수, 그 밖에 자아존중감, 세대간의 관계 등과 같은 변수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남기민, 박현주, 2010, p.407). 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고 경제활동에 종사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순미, 2010, p.155).

한편,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거나(Lee, 1999; 조계화, 이현지, 2009, p.22 재인용) 영향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남성노인 대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대 고학력 노인, 전기 노인 대 후기 노인 내지 저소득층 노인 대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이기옥 편저, 1999)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정책적, 실천적 접근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분화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집단을 구분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성별(박기남, 2004), 연령별(조계화, 이현지, 2009; kim, 2006), 교육수준별(이정의, 2010), 지역별(박순미, 2010) 정도가 대표적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보다 차별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이정의, 2010, p.2)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활만족도 향상은 노년기에 속한 모든 노인의 과제이지만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권중돈, 조주연, 2000; 조경옥, 2002; 박기남, 2004; 강희숙, 이진현, 2007; 이지현 외, 2008)에서 경제 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경제 상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로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윤순덕, 한경혜, 2004, p.6). 그러나 이선희와 이연숙(1997)의 연구에서는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이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취업여부는 경제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수준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경제수준 또는 소득수준을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노인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면, 집단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즉,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노인의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고찰은 '노인'이라는 집단적 대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분화된 노인'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정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는 것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안녕 수준을 나타내고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조계화, 이현지, 2009, p.22).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 논의 되는 개념이 생활만족도이다. 생활만족도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생활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 등(1961)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생활만족이란 현재의 모든 일상생활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며,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사기, 행복감, 심리적 안녕상태, 적응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노년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Mannell & Dupuis, 1996; 권중돈, 조주연, 2000, p.62 재인용).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해 중 우선, 성별은 선행연구별로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

고 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박기남, 2004; 박경숙, 2003; 허준수, 2004; 김춘택, 박종우, 1999)들이 있는 반면, 이선미와 김경신(2002), 정인숙(2000) 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성별과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Ling, 1992; 김태현, 1986; 김태현 등, 1999; 권중돈, 조주연, 2000; 박광희, 한혜경, 2002; 서희숙, 한영현, 2006). 둘째, 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03; 박광희, 한혜경, 2002; 허준수, 2004; 조계화, 이현지, 2009).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허준수, 2004; 서희숙, 한영현, 2006), 넷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높다는 연구(김윤경, 2001; 김성희, 정지영, 주영애, 2002; Ann, 2006)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동거유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정태연, 조은영, 2005; 윤현숙, 허소영, 2007)들도 있다.

나. 건강 요인

건강은 소득과 함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좋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박민서, 조규범, 2003; 이호성, 2005; 오승환, 윤동성, 2006;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이정희, 2010). 물론, Reicks와 Wallcae(2002), Hsu(2008)의 연구에서처럼 건강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도 있지만, 노인의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박순미(2011)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건강상태와 관련해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능적 건강상태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2009)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라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다. 여가 및 사회활동 요인

노인의 사회활동은 가정 밖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향우회, 친목회 등에 참가하고 또는 노인대학이나 그밖에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명주, 2003, p.19). 이러한 노인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노인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사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람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양곤, 1999, p.137). 따라서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오현숙, 2003; 이경숙, 박경란, 2008; 강종수, 신진, 2016), 사회참여(김홍록, 이광옥, 2008)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문화 활동, 평생교육, 각종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다양한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라. 사회적 지지 체계 요인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선경, 박희경, 2008; 박현순, 나동석, 2008). 사회적 지지는 크게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공식적 지지체계로 구분되는 데, 비공식적 지지체계인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임소진 등, 2011), 자녀와 친척들로 부터의 지지가 높을수록(신화용 등, 2001)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적 지지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공식적 지지체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노인의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

노인의 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수준과 안정적인 소득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노인은 아동, 장애인 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 및 정책에서 주요 대상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하위집단들의 특성이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박경숙, 2003; 조성남, 2004; 정운영, 정세은, 2011). 특히 소득수준은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소득에 따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의 경험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충선, 1990;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김경연, 정여진, 2006). 한편으로 노인의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이상록, 이순아(2014)는 소득의 유형과 주요 소득원들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가구소득액을 지닌 노인가구라 할지라도 본인의 근로 혹은 자산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자녀들의 소득이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노인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분석에서 공공부조소득은 노인의 우울감을 향상시키고, 사적이전소득은 노인 우울감의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사업소득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김경연과 정여진(2006)은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부유집단은 건강, 긍정적 사고, 취미생활, 경제력, 친구 또는 배우자의 존재를, 병약·부유집단은 건강, 긍정적 사고, 경제력, 자녀의 성공, 취미생활, 친구 또는 배우자의 존재를, 빈곤집단은 건강, 경제, 긍정적 사고만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여 소득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비록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구성도 소득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소득수준별로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고 또 소득수준별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전국적 표집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별 노인의 주요변인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은 각각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로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횡단조사로,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정하였다(정경희 등, 2014, p.51). 조사내용으로 가구 일반사항, 가구 경제상태,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경제상태, 경제 활동,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노후 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인지 기능 등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 중 가장 대표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연구표본은 표본 특성을 동일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 중 일차적으로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로 추출하였고, 이차적으로 소득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과 교육수준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 연령대는 65-69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구분은 우리나라 통계청 가구조사에서 소득계층의 구분을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인용해, 중위소득 50% 미만을 소득수준 하 집단,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을 소득수준 중 집단, 중위소득 150% 이상을 소득수준 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가구소득을 연단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사적이전, 공적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합하여 가구의 총수입액을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총수입액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14년도 전체 기준 중위소득금액이 전체 도시가구 가처분소득이 2,051,06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는 593명이며,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수준 하 집단은 178명(30.0%), 소득수준 중 집단은 367명(61.9%), 소득수준 상 집단은 48명(8.2%)으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설문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로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생활만족도 관련 변수는 세부적으로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등 각각의 삶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변수는 매우 만족함 5점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변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생활만족도변수로 활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으로 크게 건강변인,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변인, 경제변인,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 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건강변인은 평소 건강상태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매우 건강하다 5점에서 건강이 매우 나쁘다 1점으로 연속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변인은 현재 취업여부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취업=1, 미취업=0의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변인은 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참여, 동호회 및 친목 단체, 정치사회 단체 등의 활용 참여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하여 1곳 이상 참여하고 있음=1,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음=0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은 자녀와 왕래 내지 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친·인척 왕래 내지 연락정도, 친구·이웃·지인 왕래 내지 연락정도를 묻는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연속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은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각종 복지·문화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여부, 기관 및 시설 이용 여부를 묻는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여부는 1곳 이상 참여(이용)하고 있음=1, 전혀 참여(이용)하고 있지 않음=0으로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별 주요 변인들의 차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과 소득수준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비교를 위해 연구대상자 표본의 동질성에 기초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유형과 연령, 교육수준을 동일하게 추출하였는데, 가구유형은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성별에서는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여성 비율이 71.8%인 반면, 소득수준 상 집단에서는 여성 비율이 49.0%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빈곤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은 조사대상자가 65-69세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소득수준 하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평균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집단 별 가구 월평균소득은 소득수준 하 집단은 75.9만원, 소득수준 중 집단 172.4만원, 소득수준 상 집단은 423.5만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하 (중위소득50%미만) (N=178)		중 (중위소득50%이상 150%미만) (N=376)		상 (중위소득150%이상) (N=48)		χ^2 / F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0	28.2	167	45.5	25	51.0	17.025***
	여	127	71.8	200	54.5	24	49.0	
연령	평균연령	M=67.1(SD=1.45)		M=66.9(SD=1.36)		M=66.9(SD=1.41)		5.145
가구월 평균소득	평균값	M=75.9(SD=17.9)		M=172.4(SD=53.9)		M=423.5(SD=54.5)		4,657,519***

*** p<.001

2. 주요 변인의 집단별 차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과 관련된 주요 변인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변인의 집단별 차이는,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건강이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 중 집단과 상 집단에서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변인의 집단별 차이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소득수준 하 집단은 29.9%, 소득수준 중 집단 51.9%, 소득수준 상 집단 69.4%로 소득수준 상 집단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변인의 집단별 차이는 여가·문화 활동, 평생교육, 각종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중 1곳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세 집단 모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집단별 차이 1

특성		하 (중위소득50%미만) (N=178)		중 (중위소득50%이상 150%미만) (N=376)		상 (중위소득150%이상) (N=48)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	-	3	0.8	-	-	12.030
	건강한 편이다	58	32.8	134	36.6	24	50.0	
	그저 그렇다	40	22.6	97	26.5	12	25.0	
	건강이 나쁜 편이다	69	39.0	111	30.3	12	25.0	
	건강이 매우 나쁘다	10	5.6	21	5.7	-	-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 하고 있음	53	29.9	190	51.9	34	69.4	34.084***
	현재 하고 있지 않음	124	70.1	176	48.1	15	30.6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여부	1곳 이상 참여함	178	100.0	358	97.5	48	100.0	5.62
	참여하지 않음	-	-	9	2.5	-	-	

*** p<.001

주요 변인 중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 공식적 지지체계 변인의 집단별 차이

는 <표 3>과 <표 4>과 같다.

우선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의 집단별 차이 살펴보면, 자녀 왕래 빈도에서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3개월에 1-2회 정도'가 29.4%, '한달에 1-2회 정도'가 28.2%, 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중 집단에서는 '한달에 1-2회 정도'가 35.3%, '3개월에 1-2회 정도'가 18.5%, 소득수준 상 집단에서는 '일주일에 1회 정도'가 25.5%, '거의 매일'이 23.4%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상 집단이 자녀 왕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 집단도 하 집단에 비해 자녀 왕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등 친인척 왕래 빈도에서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가 48.3%, '3개월 1-2회 정도'가 21.0%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중 집단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가 47.7%, '3개월에 1-2회 정도'가 24.9%, 소득수준 상 집단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가 45.8%, '3개월에 1-2회 정도'가 29.2%로 나타나 형제·자매 등 친인척 왕래 빈도는 세 집단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소득수준이 상,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왕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지인 등의 왕래 빈도에서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거의 매일(주4회 이상)'이 57.9%, '일주일에 2-3회'가 14.0%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중 집단에서는 '거의 매일(주4회 이상)'이 57.9%, '한달에 1-2회 정도'가 15.8%, 소득수준 상 집단에서는 '거의 매일(주4회 이상)'이 61.2%, '한달에 1-2회 정도'가 28.6%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하 집단이 중, 상 집단에 비해 친구·이웃·지인 등의 왕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 변인에서 자녀 왕래 빈도, 형제·자매 등 친인척 왕래 빈도는 소득수준 중, 상 집단이 소득수준 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친구·이웃·지인 등의 왕래 빈도는 소득수준 하 집단이 소득수준 중, 상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는 자녀, 가족에 비해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공공부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녀나 기타 가족들의 지원 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소득수준 하 집단은 25.8%, 소득수준 중 집단은 18.9%, 소득수준 상 집단은 18.8%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소득수준 하 집단은 6.2%, 소득수준 중 집단은 6.3%, 소득수준 상 집단은 4.2%로 나타나,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비율은 소득수준 하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기관·시설이 대체로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 상 집단의 이용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복지·문화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여부에서는 한 가지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소득수준 하 집단은 10.7%, 소득수준 중 집단은 15.0%, 소득수준 상 집단은 8.3%로 나타나 각종 복지·문화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은 소득수준 중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 중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 변인의 집단별 차이

특성	하 (중위소득50%미만) (N=178)		중 (중위소득50%이상 150%미만) (N=376)		상 (중위소득150%이상) (N=48)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녀 왕래 빈도							34.433**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	-	-	-	-	-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2	7.1	57	15.7	11	23.4	
일주일에 2-3회 정도	13	7.6	34	9.4	8	17.0	
일주일에 1회 정도	29	17.1	53	14.6	12	25.5	
한달에 1-2회 정도	48	28.2	128	35.3	9	19.1	
3개월에 1-2회 정도	30	29.4	67	18.5	7	14.9	
1년에 1-2회 정도	18	10.6	24	6.6	-	-	
형제/자매 등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26	14.8	35	9.6	0	-	19.564
거의 매일(주4회 이상)	3	1.7	11	3.0	0	-	
일주일에 2-3회 정도	1	0.6	3	0.8	1	2.1	
일주일에 1회 정도	2	1.1	2	0.5	2	4.2	
한달에 1-2회 정도	22	12.5	49	13.4	9	18.8	
3개월에 1-2회 정도	37	21.0	91	24.9	14	29.2	
1년에 1-2회 정도	85	48.3	174	47.7	22	45.8	
친구/이웃 왕래 빈도							23.524*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2	1.1	9	2.5	-	-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03	57.9	212	57.9	30	61.2	
일주일에 2-3회 정도	25	14.0	47	12.8	4	8.2	
일주일에 1회 정도	24	13.5	28	7.7	1	2.0	
한달에 1-2회 정도	21	11.8	58	15.8	14	28.6	
3개월에 1-2회 정도	-	-	8	2.2	-	-	
1년에 1-2회 정도	3	1.7	4	1.1	-	-	

** p<.001, * p<.05

표 4. 주요 변인 중 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 변인의 집단별 차이

특성	하 (중위소득50%미만) (N=178)		중 (중위소득50%이상 150%미만) (N=376)		상 (중위소득150%이상) (N=48)		χ ²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로당 이용여부	46	25.8	69	18.9	9	18.8	3.686
	이용하지 않음	74.2	297	81.1	39	81.3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11	6.2	23	6.3	2	4.2	.336
	이용하지 않음	93.8	344	93.7	46	95.8	
각종 복지·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	19	10.7	55	15.0	4	8.3	3.054
	전혀 이용하지 않음	89.3	311	85.0	44	91.7	

*** p<.001

3. 생활만족도 변인의 집단별 차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의 집단별 차이는 <표 5>와 같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뒷받침하듯이 소득수준 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 집단, 하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에서도 다른 집단보다 소득수준 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영역에서는 소득수준 중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모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각각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5. 생활만족도 변인의 집단별 차이

특성	하 (중위소득50%이하) (N=178)		중 (중위소득50%이상 150%이하) (N=376)		상 (중위소득150%이상) (N=48)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생활만족도	3.22	.501	3.33	.444	3.57	.349	4.912***
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2.76	.933	2.96	.956	3.30	.845	11.887**
하위 영역							
경제상태 만족도	2.41	.743	2.68	.804	3.27	.800	29.337***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3.69	.747	3.72	.702	3.88	.485	1.464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3.79	.736	3.88	.587	4.02	.295	2.024
사회/여가/문 화 활동 만족도	3.21	.842	3.18	.788	3.44	.722	2.934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3.51	.764	3.60	.678	3.53	.756	1.058

*** p<.001, ** p<.01.

4. 각 변인별 상관관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건강변인, 여가 및 사회활동변인, 경제변인,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 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 변인 및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071~.47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여부 변인을 제외하고 각 독립변인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표 6. 각 변인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건강상태	1								
②취업여부	.191**	1							
③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여부	.005	.091*	1						
④자녀 왕래 · 연락	-.005	.062	.034	1					
⑤형제/자매 왕래 · 연락	-.055	.002	-.017	.202**	1				
⑥친구/이웃/지인 왕래 · 연락	.021	.094*	.124**	.126**	.160**	1			
⑦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 여부	.035	.260**	.071	.032	.049	.231**	1		
⑧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이용 여부	.048	-.115**	.047	.015	.021	.100*	.180**	1	
⑨전체생활만족도	.470**	.172**	.071	.134**	.182**	.253**	.153**	.174**	1

*p<.05, **p<.01

더미변수 : ②취업여부(미취업0, 취업1), ③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여부(없음0, 있음1), ⑦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없음0, 있음1), ⑧시설 또는 서비스이용여부(없음0, 있음1)

5. 집단별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소득수준 하 집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건강상태 ($\beta=.462, p<.001$), 친구 · 이웃 · 지인 왕래 · 연락($\beta=.224, p<.001$), 형제 · 자매 등 왕

래·연락($\beta=.192, p<.01$),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이용 여부($\beta=.124, p<.05$),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beta=.132, p<.05$) 등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이 많을수록,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이 많을수록,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하 집단의 경우 앞서 각 변인별 집단 차이에서도 나타났듯이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 정도, 노인복지시설 이용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수준 중 집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2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건강상태($\beta=.439, p<.001$),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beta=.201, p<.001$), 각종 복지·문화 시설 내지 서비스 이용 여부($\beta=.125, p<.01$),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beta=.104, p<.05$) 등의 설명력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이 많을수록, 각종 복지·문화 시설 내지 서비스 이용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중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복지·문화 시설 내지 서비스 이용 변인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 상 집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3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건강상태($\beta=.407, p<.01$),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beta=.402, p<.05$) 변인만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집단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이용 내지 서비스 이용 등의 공식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변인	모델1(하)		모델2(중)		모델3(상)	
	β (표준화)	t	β (표준화)	t	β (표준화)	t
건강상태	.462	8.057***	.439	9.411***	.407	2.941**
취업여부	.087	1.431	.014	.281	.045	.309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여부	-	-	.058	1.269	-	-
자녀양래 · 연락	.112	1.920	.009	.193	-.151	-.963
형제/자매 등 왕래 · 연락	.192	3.273**	.104	2.238*	.402	2.591*
친구/이웃/지인 등 왕래 · 연락	.224	3.894***	.201	4.084***	.056	.413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132	2.111*	.000	.004	.099	.629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이용 여부	.124	2.121*	.125	2.650**	.191	1.349
F		20.537***		17.559***		2.729***
R ²		.459		.282		.321
Adjusted R ²		.437		.266		.20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이 개별 노인이 처한 다양한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특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득 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각각의 유의미한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급속한 고령 사회진입으로 노인의 생활수준은 점차 빈곤해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소득수준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해 보면, 첫째, 건강상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변인의 경우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대부분(강희숙, 이진현, 2007; 박광희, 한혜경, 2002; 박민서, 조규범, 2003;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서희숙, 한영현, 2006; 윤현숙, 허소영, 2007; 이호성, 2005; 오승환, 윤동성, 2006; Nolan et al., 2004; Smith et al., 2001; Sugisawa et al., 2002; Worobey & Angel, 1990)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노화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기능저하라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이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개인적,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발한 제공이 필요하다.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 진입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친구·이웃·지인 왕래·연락 변인도 소득수준 중 집단과 하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 다음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이라는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변인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중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강선경, 박희경, 2008; 박현순, 나동석, 2008; Bisconti & Bergeman, 1999; Litwin, 2001; Rie, 2004; Wethington & Kavey, 2000)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해 볼 내용이다. Wethington과 Kavey(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한 원천으로 이웃관계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이 특히 노인들의 독립성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친구·이웃·지인 등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변인, 각종 복지·문화 시설 내지 서비스 이용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사회참여 정도가 낮고 적극적인 자원 활용 역량이 부족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서비스 이용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소득수준 중 집단도 비공식적·공식적 지원체계 모두가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중산층의 경우 비공식적 지원 체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적인 지원 체계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강점을 지닌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소득수준 상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으나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두 집단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건강상태와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 등 주로 개인적 요인, 비공식적 지지 체계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 수준 높은 경제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 상 집단의 경제수준이나 건강상태가 다른 사회적 지지 체계 요인보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과 관련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집단과는 달리 소득수준 하 집단에서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 변인이 중요한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및 공적인 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

지서비스 대부분이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도 높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만큼의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수행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 또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한 곳 이상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 노인 수에 비해 기관 수는 부족하며, 특히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수준 중 집단의 경우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 지지체계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많이 나타났다. 소득수준 중 집단이 전체 노인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으며,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변하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해간다면 향후 이들이 고연령으로 진입하고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낮은 생활만족도를 일정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준 중 집단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소득수준 중 집단의 특성 상 활발한 관계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예, 노년준비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 사회참여(여가 및 경제활동),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득수준 상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이미 이 집단의 특성 및 생활만족도 변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소득수준 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서비스 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등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는 소득수준 상 집단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다양한 분포를 비롯해 점차로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사회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소득수준 상 집단의 특성으로

저연령, 고학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노인복지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저연령, 고학력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집단이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이 나타났는데, 즉 친구·이웃·지인 등 왕래·연락,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등 노인의 비공식적 지지 체계를 유지,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이 중요하다. 이는 노년기의 역할 상실이나 감소된 역할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대체될 경우 생활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오현숙, 2003)와 가족, 친구,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계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정의, 2010)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순미는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진주보건대학교 복지행정계열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현장실천 등이며, 현재 노인소득, 노인주거, 요양보호사 직무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pworker@hanmail.net)

손지아는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이며, 현재 노인소득, 사회복지교육, 여성복지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rosa@kaya.ac.kr)

참고문헌

- 강선경, 박희경. (2008).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pp.117-139.
- 강종수, 신진. (2016). 여가복지시설 이용이 노인의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pp.541-542.
- 강희숙, 이진현. (2007).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pp.51-64.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고양곤. (1999).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6, pp.133-176.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탐색. *노인복지연구*, 34, pp.31-54.
- 김소향, 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pp.309-327.
- 김수봉.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 pp.95-111.
- 김정옥, 박자영. (2007). 도예활동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95-109.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pp.61-81.
- 김홍록, 이광욱(2008).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신체적 건강 및 행복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pp.671-680.
- 남기민, 박현주. (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9, pp.405-428.
- 박광희, 한혜경. (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pp.43-61.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pp.13-29.
- 박민서, 조규범. (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3(1),

pp.287-303.

- 박순미.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pp.137-160.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305-332.
-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pp.1-24.
- 박현순, 나동석. (2008). 취업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0, pp.147-172.
- 서희숙, 한영현. (2006).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및 수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연구*, 15, pp.159-170.
- 오승환,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pp.119-147.
- 오현숙. (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pp.57-77.
- 윤현숙, 허소영. (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pp.649-666.
- 이가옥. (편).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 나남.
- 이명주. (2003). 부산광역시 거주노인의 사회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이상록, 이순아. (2014).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5(3), pp.71-95.
- 이선형, 이연순. (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pp.31-43.
- 이정의. (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3), pp.709-726.
- 이지현, 강현곤, 정우식, 채유미, 지영진. (2008).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pp.143-156.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pp.123-138.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계화, 이현지. (2009). 한국 여성 노인의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9(1), pp.21-32.
- Bisconti, T. L., & Bergeman, C. S. (1999). Perceived social control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The Gerontologist*, 39(1), pp.94-103.
- Hsu. H. (2008). Does disability affect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ging? physical function trajectories,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48, p.11.
- Kim, M. L. (2006). The study of comparing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old women and old-old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 pp.197-222.
- Krause, N.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pp.S84-S94.
- Litwin, H. (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pp.516-524.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1961).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 Reicks, C., & Wallace, K. (2002).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control in rural elderlymen. *The Gerontologist*, 42(1), p.19.
- Sugisawa, H., Shibata, H., Houhham, G. W., Sugihara, Y. & Liang, J. (2000). The impacts of social ties in depressive symptoms in U.S and Japanes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pp.785-804.
- Worobey, J. L., & Angel, R. J. (1990). Poverty and health: older minority women and the rise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4), p.370.

Factor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Income Groups

Park, Soon-mi

(Jinju Health College)

Son, Ji-a

(Kaya University)

As the nation rapidly steps into the aging society, comprehensive understating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s critical to improve thei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NSE) of the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set of variable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tes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1) health condition; (2)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 employment status; (4) informal social support. (5) formal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further tested by households income groups: lower income, middle income, and higher incom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s that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are varied by income groups. In sum, contacts with friends, acquaintances and form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ower income group and middle income group.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higher income group. Finally, implica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we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Elderly Household, Life Satisfaction, Income Level, Survey of the Elderly